

참전동지회 지건번씨 "6·25 참전했던 우리 화교들에게 너무..." (조선일보 1999.06.28)

[사람들] 지건번씨 "6·25 참전했던 우리 화교들에게 너무..."

"매년 6·25 때면 외국 참전용사들을 초청하는 한국 정부가 우리에게 과도 관심을 보였으면 합니다.". 화교참전동지회 지건번(73) 회장은 "타향도 살다보면 고향이라고 6·25 가 터지자 같은 동족인 중공군은 물론 북한군과 싸우기 위해 참전한 화교가 200 여명이 넘는다"고 말했다. 첩보부대(HID)인 육군 4863 부대 제 55 지대에 소속된 이들은 주로 중공군으로 위장, 적군의 정보를 빼오는 역할을 맡았다. 중국말이 유창해 적 후방에서 중공군 정보를 뽑아내고 교란시키는 성과를 올렸다는 것. 군번도 없는 군속으로 참전해 대부분 전사하고 20 여명만이 살아 남았지만 전쟁이 끝나자 화교는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외면당했다.한 국에 귀화했던 2 명만 국립묘지에 안장됐고, 나머지 180 여명의 전사 자는 유엔군 참전용사 묘역등 어느 곳에도 그 흔적이 남아있지 않다. 지회장은 "상이군인 대우도, 연금도 받지 못했다"며 "생존해 있는 부상자 8 명도 보훈병원 이용 등의 혜택 없이 화교들의 도움으로 어렵게 살고 있다"고 섭섭한 감정을 털어 놓았다. 화교문제를 연구하는 양필승(양필승·건국대) 교수는 "목숨을 걸고 싸운 화교들에게 한국인 '지위'를 주는 것이 바로 한국인의 글로 별 전략"이라고 말했다.

(* 글=김영철기자 yckim@chosun.com *)

(* 사진=이덕훈기자 leedh@chosun.com *).

<http://www.chosun.com/svc/news/www/viewArticle.html?id=199906270304>

